



제목 글쓴이 GO

인물

박현권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개인정보수정

새벽이 오면, 별이 지고 욕심도 별처럼 진다

밤마다 야산자락에 모이는 별 관측 동호회 'NADA'

제 281호 2006.06.05



결혼 공부, 이혼법정에서
미리 했어요

지난호보기

- ▶ 공지사항
- ▶ 자유게시판
- ▶ 독자로부터
- ▶ 여성계소식과 행사
- ▶ 미즈엔에게 메일쓰기

정기구독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GO

독자 모니터링
미즈엔을 읽고 소감이나 평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문에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5만소평합인서비스
HugunGoCard

월간 '샘터' 독자투고 M2
생활속 감동과 웃음을
글로 표현하세요
GO

5월도 막바지인데 밤공기는 꽤 싸늘하다. 월요일 밤 아홉시.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쉴 시간이지만 천체사진 동호회 '나다(NADA)' 회원들에게는 지금부터 '별헤는 밤'이 시작된다.

오늘 별보기 장소는 분당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20분 정도 달려간 곳에 있는 한 골프클럽 앞 야트막한 야산 자락. 기차가 도착하니 보기만 해도 크기와 무게에 압도되는 망원경 장비를 설치하라 한창이다.

"별 보기에는 겨울철이 제일 좋은 계절이라 날씨가 추워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옵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자주 못 나오지요. 오늘 밤은 시상이 괜찮은 거 같은데요."

'시상'이란 공기의 흔들림을 말한다. 별을 관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시상과 대기의 투명도다. 오늘 밤 날씨가 괜찮을 것 같다고 연락해준 박현권씨는 "이 취미를 갖게 되면 날씨에 아주 관심이 많아진다"고 했다. 직장에서도 틈나는 대로 기상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밤에 날씨가 어떨지 가능하다. 별 관측 취미 3년이면 일기예보가 따로 필요 없이 날씨 예측 능력이 생길 정도로 내공이 붙는단다. '별을 따다 그대에게 바치리'라는 박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결혼한 아내 홍규영씨도 어느새 별 사진 찍는 재미에 흠뻑 빠졌다.



망원경 속의 목성, 내가 처음 발견한 듯한 기쁨

나다'는 2003년 3월에 만들어진, 디지털 천체사진을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천문인들의 모임이다.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데 온라인 사이트(www.astronet.co.kr)를 중심으로 수시로 번개모임을 공지하고 각자가 촬영한 천체 사진을 올리면서 촬영기법과 별 관측 관련 지식을 교환한다. 천체 관측 장소로는 공기가 맑은 곳을 찾는 것도 권장하지만 무엇보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어야 한다. 밤거리의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우리 눈에 달기까지 몇 천, 몇 백 광년을 날아오는 별빛을 이겨버리기 때문이다.

이 날 모인 분당 전원주택지는 지대가 높고 도시 불빛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고 서울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 회원들이 즐겨 찾던 장소.

“조금 전까지 토성이 참 예쁘게 뒀는데 저버렸어요. 목성 보실래요?”

취미생활로 천체 관측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다는 유성운씨의 망원경 렌즈에 눈을 갖다대니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로 줄무늬를 얽잡하게 배에 두르고 위성 네 개를 거느리고 있는 목성이 보인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고 '줄무늬'가 워낙 유명해서 초보자들이 관측을 시작할 때 즐겨 찾는 별이다. 목성은 태고 적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건만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마치 내가 처음 발견하기라도 한 듯 신기하다. 바로 이 느낌 때문에 바람이 쌀쌀한 오밤중에 '달밤의 체조'를 하러들 오는가, 약간 이해가 갈 듯 하다.

가느다란 초승달도 망원경 렌즈 안에서는 제법 크고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달 표면의 울퉁불퉁한 클레이터(운석구덩이)를 눈으로 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달과 누런 금덩이, 또는 치즈 덩어리를 연관지어 떠올리지 않을 것 같다. 보름달이 뜰 때면 너무 환해서 별 관찰에 좋지 않고 그믐달 근처가 천체 관측하기에 월령(달의 차고 기우는 정도)이 좋은 시기다.

아무도 몰랐던 별을 만날 수 있을까

요즘은 장비가 발달해서 별 번호(메시에 목록 번호)나 위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별을 찾아주는 자동도입장치를 써서 초보자도 5분 안에 보고 싶은 별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성도(별지도)를 들고 길 더듬어 찾듯 하나하나 별 찾아내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별을 보러 다녔다는 이근호씨는 경력이 꽤 붙은 요즘은 “밝고 화려한 별들보다 오히려 어둡고 작은 별을 찾아내는 재미가 각별하다”고 말한다.

특히 카메라를 사용하면 빛을 축적할 수 있어 망원경을 통해 눈으로 볼 때보다 별의 색감이 잘 나타나고 고굴절 망원경으로도 잘 안 잡히는 조그만 별들을 찍을 수 있다.

이씨가 갖고 다니는 냉각 CCD 카메라로 천체를 찍다보면 간혹 아주 어둡고 작은 별이 찍힐 때가 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별이라면 국제 천문학회에 보고하고 헬리 혜성처럼 발견자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아무도 몰랐던 별을 발견해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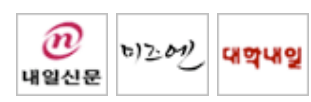
혹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찾아다니는 즐거움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삼열성운(사진)에 대한 어느 관찰자의 관측기처럼 별을 보며 “누군가가 차마 전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져, 슬픔을 가득 안고 점점 시들어만 가고 있는 장미”를 떠올리는 이 세계에 빠져들어 보라. 욕심 같은 건 밤이 깊어지면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별처럼 가뭇없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오진영 기자



[전체기사목록](#) [지난기사목록](#)

미즈엔 | 미즈엔소개 | 정기구독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일신문 | 회사소개 | 내일신문 | 대학내일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04415 | 통신판매 신고번호 : 제 01-1535호 대표 : 김선태 | 정보관리책임자 : 백재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55번지 내일신문빌딩 3층 | 전화 : 02-2187-2171 | 팩스 : 02-2187-2150
디지털내일은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copyright© 2006 디지털내일 all rights reserved.